

# 창원시 통합 10주년 세계 경제 중심된다

창원시(시장 허성무)가 올해 구 창원·마산·진해 통합 10주년을 맞았다. 이는 우리나라 지방자치 역사상 최초이자 유일한 자율통합 사례였다. 통합 10년의 변화와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좋은 소식이 들린다.

## 방산혁신클러스터 시범 도시 선정

방위사업청이 대한민국 방위산업 핵심 거점으로 성장해 나갈 방산 혁신클러스터 시범사업 대상 지역으로 창원시를 선정했다. 이 사업은 전국 최초로 방위사업청이 참여하는 '방산혁신지원센터'를 창원 국가산단에 구축해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이뤄진다.

이를 통해 지역 방산 기업은 체계기업, 연구소, 대학, 군과의 유기적인 관계로 부품 국산화 소요·발굴과 연구개발(R&D) 사업화를 통한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방산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민간협력 기술의 이전을 통한 새로운 무기체계 개발 참여를 지원하며, 중소·벤처 기업의 핵심 모듈이나 부품을 수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된다.

방산혁신클러스터 시범사업은 올해부터 5년간 500억원의 예산과 각종 정책이 지원된다. 방위사업청 자료에 따르면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는 생산유발 843억원, 부가가치 유발 373억원을 포함해 총 1천216억원으로, 이에 따라 일자리 1천24개가 창출될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5천억원에 이르며 일자리 2천500개도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계·전자·장비·부품 산업의 품질고도화에 따른 성과 확대로 창원시가 대한민국 방산 혁신성장의 거점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재료연구소 전경

## 재료연구소가 재료연구원으로 격상

지난 4월 창원지역의 오랜 염원인 재료연구소의 '원 승격'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료연구소의 '원' 승격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지난해 일본 정부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소재에 대해 한국 수출을 제한하면서 소재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국내 소재산업은 제조업 생산액의 18% 비중을 차지하며 연간 200억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해외 의존도가 높은 첨단 소재의 국산화를 위한 연구기관이 부재한 실정이었다.

창원시는 소재 강국 진입을 위해 독립된 법인격의 소재 전문 연구기관이 필요하다는 여론과 공감을 얻어냈고, 그 결과 원 승격 관련 법안 통과로 이어졌다.

오는 11월 원 승격이 되면 산업 전반의 소재 연구개발(R&D)과 기술 지원 전문연구기관, 국내 유일의 종합소재 연구기관으로 확고한 입지구축이 가능해진다. 또 지역 공공연구기관으로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기술개발과 기업지원 활동을 통해 지역 내 막대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⑤



창원시 항공사진